

‘영어 글쓰기교실’과 ‘멀티미디어 학습실’의 운영 현황 및 계획



들어가는 말

2005년 2학기는 기초교육원 부속 대학영어 프로그램에 큰 변화가 일어난 학기였다. 5년여 동안 시행해오던 랩 수업을 폐지하고, 학생들에게 영어 글쓰기 및 청취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영어 글쓰기교실’과 ‘멀티미디어 학습실’을 신설한 것이다. 그동안 대학영어 프로그램에서는 1년여의 준비기간 동안 국내외 우수대학 사례를 연구해 서울대 학생들에게 적합한· 영어 글쓰기교실 및 멀티미디어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했다. 또 기초교육원의 지원 아래 산뜻한 색상의 인테리어나 최신 설비를 갖췄다. 새로운 시설과 시스템으로 시작한 영어 글쓰기교실과 멀티미디어 학습실은 학생들의 환영을 받으며 성공적인 한 학기를 마쳤다.

영어 글쓰기교실과 멀티미디어 학습실 설치 의의

최근 영어 교육에 있어 독해·작문보다 말하기·듣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더 큰 관심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인터넷이 보편적으로 보급되면서 대부분의 정보교환이 영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에서는 각종 논문을 영어로 써야 할 경우가 많아지고, 기업에서도 사업 계획서나 보고서를 영어로 작성할 필요가 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영작문이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TOEFL이

나 GRE에서 평가요소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수능능력시험을 대비해 영어를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일이겠으나, 학생들이 영어 글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써 말뿐 아니라 글을 사용한다는 간단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영어 글쓰기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학생들의 영어 작문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글쓰기교실의 신설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고 하겠다. 또 대학영어의 목표가 통합적 영어구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멀티미디어 학습실은 학생 스스로 효과적인 영어 청취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 실태

영어 글쓰기교실과 멀티미디어 학습실이 처음 문을 연 2005학년도 2학기에는 이들 프로그램이 대학영어 및 고급영어와 연계해 운영됐다.

우선 대학영어 수강생들은 학기 중에 의무적으로 글쓰기교실을 한 번씩 방문해 대부분 영문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9명의 상담조교로부터 상담을 받아야 한다. 학생들은 영어 글쓰기교실 홈페이지 예약메뉴를 통해 상담조교와 약속한 후, 글쓰기교실에서 제안한 다섯 가지 영작문 주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한 문단의 글을 쓴다. 상담조교들이 초고를 미리 읽고 상담 내용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최소한 이틀 전에 홈페이지에 초고를 게재해야 한다. 그리고 약속시간에 글쓰기교실을 방문하여 상담조교와 면대면으로 30분간 영어 글쓰기 지도를 받는다. 이후 3일 내에 수정본을 상담조교에게 보낸다. 영어 글쓰기교실 방문 상담은 대학영어 성적에 5% 반영되는데, 글쓰기·상담·수정본 제출을 완수하면 만점을 부여하여 기본적으로 성실도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학습실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학생의 성실도에 따라 평가하는데, 대학영어 및 고급영어 수강생의



황윤희 (영어 글쓰기교실 운영 실장)

성적에 각각 5%, 10%의 비율로 반영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2회씩 방문해야 하며, DVD 목록 중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 자율적으로 청취 연습할 수 있다.

2005년도 시행 결과

2005학년도 2학기 첫 시행 결과 학생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학생들에게 영어 글쓰기교실 방문이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온 것 같다. 상담조교들은 상담 경험이 부족했음에도 성의를 다해 상담에 임했다. 상담은 주로 영어 글쓰기 과정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필요에 따라 문법에 대한 설명이 부가됐다. 영어로 쓴 글에 대해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는 친절한 선배가 있고, 부담 없이 상담을 하다 보니, 영어 공부 전반에 관한 이야기도 하게 되고, 때로는 진로 상담까지 받고 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물론 대학영어 시간에도 선생님들이 글쓰기를 포함하여 영어 공부에 대해 지도하지만, 모든 학생들과 1:1 상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선배격인 상담조교와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영어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상담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영어에 흥미도 생기게 됐다는 소감이 많았다.

풍부한 학습자료 및 기자재를 비치한 멀티미디어 학습실에서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지적 욕구와 수준에 맞는 다양한 언어 학습 환경을 경험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학습에 몰두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대학 4년간 영어 글쓰기교실 및 멀티미디어 학습실을 꾸준히 이용하면 영어 학습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향후 계획

2006년 1학기부터는 대학영어 수강 학생들뿐 아니라 대학원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작문 숙제 등 어떠한 형태의 영어 관련 글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한 상담조교를 늘려 다양한 배경을 가진 14명의 조교들이 상담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상담조교들은 겨울 동안 새로 개발된 훈련지침서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훈련을 받는다. 특히 외국 경험이 많은 두 명의 상담조교들은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영어로 상담을 할 예정이다. 영어 상담은 이번 학기에 수요를 파악하여 2학기부터는 모든 상담조교들이 영어로 상담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또 지난 학기 설문에 따르면 학생들이 영어 문법에 관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이번 학기부터는 문법에 관한 자료집을 개발하여, 원하는 학생들은 문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상담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그리고 학술지를 포함하여 영어 글쓰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구비하여 학생들뿐 아니라 영어 글쓰기에 관심 있는 교수들에게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학기에는 두 번의 워크숍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 이번 학기에는 보다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을 개최해 학생들에게 영어 글쓰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습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멀티미디어 학습실에서도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해 다양한 영어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운영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

학생들은 영어 글쓰기교실과 멀티미디어 학습실을 이용하면서 영어를 조금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 영어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도움과 지원을 받을 곳이 없어 고민하는 학생들이 유용한 기회와 공간을 제공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결국 영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잃었던 글쓰기의 기쁨을 되찾고, 영어 실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이용 시간 및 문의

월 - 금 : 오전 9시 ~ 오후 5시

영어 글쓰기교실 : 3동 203호 880-4010

멀티미디어 학습실 : 3동 212호 880-5487